

리사이클 'PCR-PP소재' 개발, 플라스틱 규제 선제대응

(재생 폴리프로필렌)

롯데케미칼, 친환경경영 큰 걸음

화장품 용기 리사이클 원료 가공
국내외 업체와 물성 테스트 완료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

롯데케미칼이 글로벌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롯데케미칼은 3일 국내 최초로 화장품 및 식품 용기에 적용이 가능한 PCR-PP(재생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소재는 소비자가 사용한 화장품 용기를 수거 후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료로 만들고, FDA 안전기준에 적합한 가공 공정을 거쳐 PCR-PP로 재탄생하게 된다.

PCR-PP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료를 30% 및 50% 함유한 등급으로 개발됐다. 화장품 및 식품 용기 등의 사용을 위한 FDA 인증도 국내 최초로 완료했다. 현재 국내외 화장품 용기 제작 업체들과 물



롯데케미칼 플라스틱 자원순환 Project LOOP.

성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예상된다.

국내외 글로벌 화장품 업계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화장품 포장재를 최대 100%, 재활용 또는 플라스틱 리사이클 원료로 만든 제품을 최대 50%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포장용기 개발에 많은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장품 용기의 PCR-PP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화장품 용기 중 약 60%에 플라스틱 소재가 사용되고 있고, 이 중

약 30%가 폴리프로필렌(PP) 소재로 이뤄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롯데케미칼은 플라스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프로젝트루프(Project LOOP)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생 플라스틱 소재(rPET, rPP, rABS, rPC)를 개발해 모바일, TV 등 생활가전에 재생 PC(폴리카보네이트) 및 재생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의 소재를 적용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 주기를 늘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김교현 대표는 "이번 개발로 국내에서도 화장품 용기 뿐만 아니라 식품 용기, 기타 산업 분야 등에서도 PCR-PP 소재를 적용한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롯데케미칼은 재생 플라스틱 소재의 공급과 개발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해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현장엔지니어가 태블릿PC를 통해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 솔루션으로 제작한 3D 디지털 매뉴얼을 보면서 작업하고 있다. /삼성SDS

삼성SDS, 3D 설계 데이터 지능화 선도

대용량 데이터 경량화·시각화

삼성SDS가 최근 3차원(3D) 설계 데이터의 현장 공유 및 비대면 협업을 지원하는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 솔루션으로 제조 지능화를 선도하고 있다 3일 밝혔다.

통상 3차원 설계도는 CAD 제품별로 데이터 형식이 달라 호환이 어렵고, 도면을 보기 위해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와 고성능 PC가 필요했다. 또, 도면 유출의 위험이 있어 설계 단계의 파트너간 협업과 생산 및 시공 현장과 정보 공유도 쉽지 않았다.

이에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는 ▲ 30여종의 다양한 3D 설계 데이터를 호환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경량화하여 웹·모바일에서 빠르게 시각화하며 ▲ 클라우드 기반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안성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고민을 해결했다.

실제로 이 솔루션을 도입한 A 건설사는 3D 설계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하면서 발주처-시공 현장-파트너사 간 협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네트워크 인프라가 열악한 해외 공사 현장에서 경량화된 설계도면을 모바일로 빠르

게 조회하며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었고, 고가의 CAD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도 대폭 절감했다.

제조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곳에 모이기 어려운 설계-생산-파트너사 담당자들이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의 디자인 미팅 기능을 활용해 원격으로 설계 데이터를 실시간 검증하고 설계 변경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객 지원 분야에서는 현장 엔지니어가 모바일 기기로 3D 매뉴얼을 확인해 제품 설치와 애프터서비스를 진행하고, 사무실에 있는 전문가에게 영상을 공유하며 실시간 원격 지원을 받게 된다. 실물 샘플 없이 쉽고 빠른 3D 디지털 매뉴얼 제작이 가능해 교육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삼성SDS는 현재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 솔루션으로 가전, 반도체, 건설·엔지니어링 업종에 적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선박, 하이테크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SDS는 9월 9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리얼 2020' 행사에서 넥스플랜트 3D 엑셀런스를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S전선, IDC용 버스덕트 신제품 출시

(데이터센터)

버스덕트 전원 장치 이동식 설계
디지털 뉴딜 정책 맞춤형 제품

LS전선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용 버스덕트 신제품 출시해 디지털 뉴딜로 시장을 확대한다.

LS전선은 3일 국내 최초로 데이터센터(IDC)용 버스덕트 신제품을 개발 및 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IDC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맞춤형 제품 출시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버스덕트는 수백, 수천 가닥의 전선 대신 금속 케이스 안에 판형 도체를 넣어 대용량의 전력을 공급한다. 조립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전선보다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고, 부피가 전선의 절반 이하로 공간 효율성이 뛰어나다. 또한 설치 비용을 15% 이상 줄일 수 있어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공장 등을 중심



LS전선 데이터센터 전용 버스덕트 IDC-ways. /LS전선

으로 도입이 늘고 있다.

LS전선이 개발한 IDC 전용 제품은 천장에 설치된 버스덕트의 전원 장치를 이동식으로 설계해, 서버의 전원코드를 원하는 곳에 바로 꽂을 수 있다. 당초 서버실에 전선을 사용할 경우 바닥으로 전선 다발을 복잡하게 연결해,

서버의 이동과 증설 자체가 어려웠다. 또, 버스덕트는 전력 사용량을 전선보다 30% 가량 줄여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LS전선은 "데이터센터는 5G통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데이터 이용이 증가하면서 서버의 이동이나 증설 등이 중요해졌고, 대규모 전력 소비도 골칫거리였다"며 "LS전선이 IDC용으로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외산 제품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S전선은 주요 반도체, 석유화학 플랜트, 대형 쇼핑몰, 초고층 빌딩 등에 제품을 공급하며 국내 버스덕트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향후 풍력타워 등 신재생 에너지와 선박, 시추선 등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LG헬로비전 "약정없이 새 휴대폰 쓰세요"

해지시 위약금 없이 할부금만 부담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은 무약정 반값 요금과 결합한 '약정 없는 휴대폰 할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블랙베리 키투', '갤럭시S10e' 등 인기 휴대폰 6종을 할부로 부담 없이 구입하면서 반값 요금으로 통신비도 절약할 수 있다. 해지시에는 위약금 없이 단말기 잔여 할부금만 내면 된다.

'약정 없는 휴대폰 할부' 서비스는 휴대폰 할부 구입(24개월), 무약정 요금 가입 혜택을 동시에 제공한다. 무약정 요금 가입은 타사 대비 최대 82% 저렴한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새 휴대폰을 사려면 지원금을 받는 대신 비싼 요금제에 약정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 없이도 기기값과 통신비 부담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

대상 단말은 총 6종의 중저가 실속 라인업이다. 블랙베리 키투 2종(64GB, 128GB)을 비롯해 ▲갤럭시 A시리즈 2종(A30, A31) ▲보급형 프리미엄 폰 갤럭시S10e ▲폴더폰 LG 폴더를 마련했다.



모델들이 '약정 없는 휴대폰 할부'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헬로비전

전용 요금제는 헬로모바일 스테디셀러 유심상품 혜택을 그대로 담은 단말 요금 4종이다. '약정없이 통화 데이터 맘대로 11GB(3만3000원)', 실속 상품 '약정없이 2GB 200분(7700원)' 등 라인업을 구성했다.

가령 '갤럭시S10e+반값 무제한 요금' 조합으로 서비스가 가입 시, 이동사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할 때보다 월 통신비가 약 21% 낮아진다. 여기에 제휴카드 최대 월 2만원 할인(전월 이용실적 기준)까지 더하면 2년간 약 93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몰 '약정 없는 휴대폰 할부' 페이지에서 원하는 단말과 요금을 선택해 가입한 뒤 번개배송 서비스를 통해 1일 내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lkni@

SK네트웍스, 삼성 노트북 재구매 할인

새 제품 교체시 최대 50% 보상

SK네트웍스가 삼성전자 노트북 재구매 할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SK네트웍스는 3일 '삼노환'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삼노환은 삼성 노트북 환승 할인 클럽의 약자다. 삼성 노트북 구매고객이 향후 새 제품으로 교체하면 노트북 가격의 최대 50%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SK네트웍스는 삼성전자 공식 온라인 솔루션 파트너사로, 민팅을 운영하면서 중고기기 관련 노하우를 활용해

삼노환 프로그램을 출시할 수 있었다.

삼노환은 2000대 한정으로 11번가를 통해 단독으로 제공되며, 노트북 4종(갤럭시북플렉스, 갤럭시북이온, 갤럭시북S, 노트북PLUS)을 구입하는 고객에 자동 적용한다.

구매 고객은 24개월 또는 36개월 간 사용 후 기준에 구매했던 노트북을 반납하고, 해당 기기 가액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적용 받아 삼성의 신규 노트북을 재구매할 수 있다.

또 시원스쿨, 스카이에듀 등 여학과 수능·고등내신, IT·직무 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삼성에듀 이용권을 최



SK네트웍스 '삼노환' 프로그램 출시

대 2년 간 제공한다. 모바일 도서 플랫폼 윈스토어북스 캐시 5000원을 2년간 매월 지급하고, SK네트웍스서비스를 통해 무상 노트북 점검 서비스도 2년차에 2회에 걸쳐 지원한다. /김재용 기자